조선

2025 5
(828)

1956년 4월

화보 《조선》 창간

차　　례

특별소식

2 ‖ 평양건설의 새로운 전성기, 평양문화의 개화기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눈부신 웅자
화성지구 3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식 성대히 진행

14 ‖ 새시대 해군현대화에서 중대한 돌파구를 열어놓은 특기할 사변
조선인민군 해군 구축함 진수기념식 성대히 진행

26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형구축함건조에 공헌한 남포조선소의 로동계급과 함선공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28 ‖ 다목적구축함 《최현》호의 함무장체계들에 대한 전투적용성시험에 착수

소　식

32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3돐을 환희롭게 경축

44 ‖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3돐을 뜻깊게 경축

46 ‖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안북도와 자강도, 량강도의 수해지역에 새로 일떠선 학교들에 악기들을 보내시였다

48 ‖ 화성지구 3단계 새 도시구획의 새집들이

50 ‖ 당의 은정속에 새로 일떠선 20개 시, 군지방공업공장들의 제품품평회 진행

52 ‖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 5.1절 135돐 뜻깊게 기념

54 ‖ 조로국경자동차다리건설착공식 진행

56 ‖ 백두산지역이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으로 등록

오늘의 조선

62 ‖ 수양산지구의 석재생산기지

66 ‖ 평양지하철도

체　육

72 ‖ 2중세계선수권보유자 방철미

자　연

74 ‖ 라선의 습지

표지, 뒤표지: 준공된 화성지구 3단계 1만세대 살림집

편　집: 변일진, 김규성, 승 룡, 리금주

2

14

56

66

74

평양건설의 새로운 전성기, 평양문화의 개화기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눈부신 웅자

화성지구 3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식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여 준공테프를 끊으시였다

세기를 주름잡는 조선의 기상, 거창한 변혁으로 약동하는 시대의 숨결을 안고 우리 국가의 수도 평양은 특유의 웅자와 명성을 한껏 떨치며 세계적인 리상도시, 사회주의 새 생활, 새 문명을 향유하는 인민의 행복의 별천지로 나날이 일신되고있다.

화성지구 3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식이 4월 15일 성대히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장에 나오시자 축포가 터져오르고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 박태성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내각, 무력기관, 성, 중앙기관 일군들, 건설자들, 평양시안의 근로자들이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덕훈동지가 준공사를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테프를 끊으시였다.

위대한 변혁의 시대를 상징하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련이어 떠올리며 사랑하는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성스러운 려정을 멈춤없이 거폭으로 이어나가는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투쟁사에 불멸할 력사적화폭이 또다시 펼쳐진 준공식장에 경축의 축포탄들이 터져오르고 고무풍선들이 날아올라 화성지구를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견결한 개척정신과 애국의지로 우리 국가의 존엄과 강대함을 떠받들며 사회주의문명이 개화만발하는 리상사회건설에 온넋을 바쳐갈 전체 조선인민의 억센 기상과 강렬한 열망이 넘쳐흐르는 시대의 찬가들이 준공식장에 울려퍼지며 참가자들을 크나큰 감격과 희열로 끓게 하였다.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펼쳐지는 사회주의 내 조국, 가장 걸출한 위인을 수령으로, 어버이로 높이 모신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가 장중히 울리고 끝없는 행복과 영광의 도시 평양의 밤하늘가에 축포탄들이 연해연방 터져올라 장쾌한 불꽃바다를 펼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건국이래 있어보지 못한 거창한 창조대전으로 수도 평양에 눈부신 천지개벽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고 인민들이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의 향유자로 복된 삶을 누려갈 부흥번영의 최전성기를 안아오시는 걸출한 혁명가, 창조와 건설의 거장, 자애로운 어버이를 우러러 목청껏 열광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준공식장은 또다시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터치는 《만세!》의 환호성과 함께 격정의 도가니로 화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새 살림집에 입사하게 될 근로자들과 로인들을 만나시였다.

평범한 근로자들을 황홀한 사회주의리상거리의 주인들로 내세워주신 **김정은**동지께 수도시민들과 온 나라 인민들의 한결같은 고마움의 마음을 담아 교원, 로동자가족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삼가 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렇게 현대적인 살림집을 이제야 안겨주게 되여 미안하다고, 오늘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는 시민들의 모습을 대하고보니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감을 떠맡아안을 결심이 더욱 굳어진다고 하시며 모두다 새 집에서 무병무탈하여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수도건설정책을 높이 받들어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에 공헌하고있는 군대와 사회의 로력혁신자들을 만나 따뜻이 격려해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동무들과 같이 당의 구상을 무조건적으로 실천해나가는 애국적인 정예의 건설대군이 있기에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의 승전포성은 화성지구에서부터 먼저 울려퍼지게 될것이며 평양의 새로운 번영기는 줄기차게 이어질것이라고 사랑과 믿음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격정의 눈물을 흘리며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올리는 수도시민들에게 오래도록 따뜻이 손저어 주시며 희한한 새 거리에 보금자리를 펴게 될 모든 가정들에 만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위하여, 위대한 우리 국가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수도의 휘황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충성과 애국의 한길을 변함없이 가고갈 철석의 맹세를 담아

전체 참가자들은 열광의 환호성을 끝없이 터쳐올리였다.

화성지구 3단계 1만세대 살림집의 준공은 사회주의조선을 륭성번영의 상상봉에로 이끄는 위대한 당중앙의 탁월한 령도력과 당의 두리에 일심일체로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애국의 힘이 받들어올린 부흥강대한 우리 국가특유의 참모습의 일대 과시이며 백배해진 투지와 자신심으로 조선로동당창건 80돐과 당 제9차대회를 향한 전인민적인 진군기세를 더욱 승화시켜주는 고무적인 대경사로 된다.

특별소식
불고기 식당

사회주의 만세!
사회주의 만세!
자력부강
자력번영
지상락원
일심단결 만세!

사회주의 만세
사회주의 만세

사회주의 만세!
사회주의 만세!

새시대 해군현대화에서 중대한 돌파구를 열어놓은 특기할 사변

조선인민군 해군 구축함 진수기념식 성대히 진행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새로 건조한 구축함 진수기념식이 조선혁명의 첫 무장력의 창건일인 뜻깊은 4월 25일 남포조선소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진수식장에는 우리 국가의 륭성번영과 백년대계를 위한 국방공업혁명의 급속한 발전을 억세게 이끌어 공화국무력의 절대적힘, 불가역적강세를 굳건히 다지고 최강의 해군무력을 가지려는 우리 인민의 세기적숙망을 가슴후련히 풀어준 위대한 당중앙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의 정이 뜨겁게 흐르고있었다.

조선인민군 해군 명예위병대가 영광의 시각을 기다려 엄숙히 정렬해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진수기념식장에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탁월한 혁명사상과 무비의 배짱, 불철주야의 헌신으로 우리 국가와 우리 인민의 존엄과 권위를 세기의 상상봉에 떠올리시며 부국강병의 새시대를 활기차게 열어나가시는 위대한 혁명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을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국가수반을 영접하는 의식이 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해군의 영예의 군기와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였다.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해군사령관 김명식해군대장을 비롯한 해군의 주요지휘관들과 해군 동, 서해함대와 관하 수중 및 수상함 전대 지휘관들이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정중히 맞이하였다.

조선인민군 해군 명예위병대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김정은동지를 위시하여 당과 정부, 군부의 지도간부들과

해군사령관, 해군 동, 서해함대사령관들, 남포조선소 지배인 등이 주석단에 등단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일군들과 도당위원회 책임비서들, 함선건조에 기여한 일군, 공로자, 로력혁신자들, 조선인민군 군종, 군단 지휘관들이 초대석에 자리잡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조춘룡동지가 진수기념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우리 함선공업부문 로동계급이 건조해낸 가장 강력한 무장을 갖춘 5 000t급구축함이 이제 조국의 푸른 바다에 수호자의 성스러운 새 이름을 새기게 된다고 하면서 순수 우리의 힘과 기술로 불과 400여일만에 현대적인 구축함을 무어낸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실이며 해군전력강화에로 나아가는 려정에서 결정적인 진보를 이룩한 사변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남포조선소 지배인 윤치걸동지의 답례발언이 있었다.

그는 남포조선소의 로동계급이 현대적인 구축함을 건조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전원회의 결정을 영예롭게 관철하여 당 제9차대회에 공화국의 첫 새세대 구축함을 애국충성의 선물로 드릴수 있게 준비되였음을 궁지높이 보고하였다.

이어 신형다목적구축함의 등급규정과 함명칭, 함번호를 규정함에 관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서를 박정천동지가 발표하고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사령관에게 전달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친필서명하신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에 따라 새로 건조한 5 000t급 신형다목적구축함이 《최현》급으로 등급분류되고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체질화한 군사활동가의 전형이고 공화국무력의 원로이며 백전로장인 항일혁명투사 최현동지의 이름으로 명명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지휘관들에게 구축함 《최현》호의 군함기를 수여하시였다.

동해함대사령관 박광섭해군중장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구축함진수식을 기념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노광철동지가 진수바줄을 잘랐다.

군항에 함의 고동소리가 울려퍼지는 속에 해군현대화의 새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알리는 강위력한 실체가 조국의 바다에 웅건한 모습을 드러내는 력사의 순간을 맞이한 격정과 환희를 담아 꽃보라와 색테프들이 쏟아져내리고 축포탄과 고무풍선들이 날아올랐다.

조선인민군 해군 구축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현동지의 기념상앞에 꽃송이를 놓으시고 숭고한 경의를 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구축함 진수기념식에 즈음하여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구축함에 오르시였다.

함은 국가수반의 첫 사열을 받는 영광을 받아안았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함장의 영접보고를 받으시고 함의 선수, 선미갑판을 돌아보시며 해병들과 상봉하시고 뜨거운 전투적 격려를 주시였다.

구축함에서는 항일혁명투사 최현동지의 기념상이 제막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최현동지의 기념상앞에 꽃송이를 놓으시고 숭고한 경의를 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수령의 명령지시에 대한 무조건적인 집행정신은 최현동지의 혁명가적 풍모와 군사가적기질에서 근본핵을 이룬다고 하시면서 두 제국주의강적이 그 이름만 들어도 공포에 떨던 백전로장의 명성과 고귀한 넋이 우리 해군의 무적필승의 상징, 전투적 기치가 되여 나붓길 때 조국의 바다는 끄떡없고 백승의 전통은 련면히 계승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함에서 내리시여 구축함건조사업에 기여한 남포조선소의 공로자들을 만나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밝힌 국방건설의 전략적로선과 정책을 절대적인 충성과 결사의 실천으로 받들어나가는 남포조선소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애국의 무진한 힘과 열정이 있어 주체해군의 새로운 탄생이라고 자부할수 있는 력사적사변을 안아올수 있었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구축함 《최현》호에 혁혁한 군공과 무궁한 영광만이 있기를 기원하시면서 함의 지휘관, 군관들에게 기념동전을 수여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구축함 진수기념식에 즈음하여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해상주권의 철저한 수호를 위한 힘을 키우는데 필수적이고 선진해양강국을 지향한 로정에서 중대한 출발점으로 되는 새세대 다목적공격형구축함 제1호의 진수를 조선의 첫 혁명적무장력이 탄생한 4월 25일에 선포하게 되는 력사적의의와 감개함을 피력하시면서 당의 해군무력강화로선을 받들고 신형구축함을 훌륭히 건조한 남포조선소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 새시대 함선공업혁명의 주력으로 분투하고있는 조선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계급에게 전투적인 격려를 보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국가의 안전환경을 매우 심각하게 위협하고있는 주변정세에 대해 엄정하게 분석하시고 침략을 할수 있는 힘과 침략을 막을수 있는 힘은 정비례한다고 하시면서 원양함대보유가 가지는 당위성과 필요성, 국가안전의 선결적

요구와 세계적인 해군무력발전추세에 맞게 해군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는 우리 당의 구상과 그 실현을 위한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의 연설은 새시대 함선공업혁명을 줄기찬 앙양과 고조에로 인도하고 공화국해군을 국가방위의 핵심군종, 핵전쟁억제력의 구성부분으로 비상히 장성강화해나가는데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지는 불멸의 대강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구축함의 지휘관, 해병들과 함께 《최현》호를 배경으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구축함의 전체 해병들이 우리 혁명의 개척세대가 지녔던 불굴의 신념과 승리의 전통을 굳건히 계승하여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담보하는 바다의 맹장이 되며 주체해군의 새로운 영웅신화를 끝없이 창조해나가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구축함건조에 공헌한 조선소와 연구소의 일군, 공로자들과도 력사에 길이 남을 불멸의 화폭을 남기시였다.

이날 신형다목적구축함 진수식을 기념하여 조선인민군 해군이 성의껏 마련한 연회와 중앙예술단체들의 축하공연이 진행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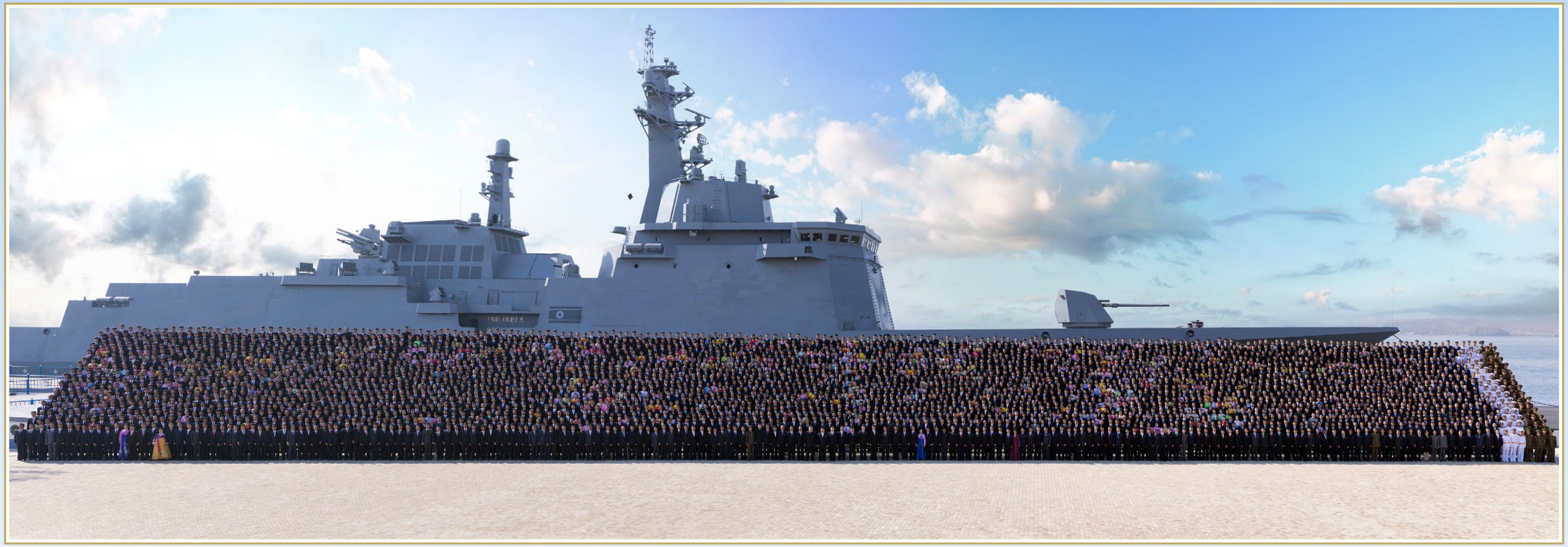
김정은동지께서는 축하공연이 끝난 후 해군제대장령들을 만나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해군의 중요직에서 오래동안 성실히 복무하면서 무한한 희생성과 불굴의 기개로 해군사에 불멸할 항적을 기록한 어제날 장령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그들의 위대한 정신은 변함없이 계승되여야 하며 영원한 수호의 넋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국가방위력의 가속적장성과 인민의 평안을 위한 헌신과 로고의 려정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김정은**동지를 남포조선소의 책임일군들과 해군제대장령들이 정중히 바래워드리였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진행된 신형다목적구축함 진수식은 우리 해군의 새로운 탄생을 알리는 일대 경사로, 선진해양강국의 웅대한 목표를 향해 노도와 같이 나아가는 우리 국가와 인민의 전진기세와 필승의 기상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한 일대 사변으로 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형구축함건조에 공헌한 남포조선소의 로동계급과 함선공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4월 29일 새시대 해군현대화에서 중대한 돌파구를 열어놓은 남포조선소의 로동계급과 함선공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만나시고 고무해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의 전략적구상을 높이 받들고 우리 당이 결심한 함선공업혁명의 정당성과 승리의 필연성을 실천으로 증명한 함선공업부문의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따뜻이 축하격려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함선공업의 획기적장성과 해군무력의 첨단화를 중핵으로 하는 21세기 해양강국건설에서 핵심적위치에 있는 남포조선소에 대한 당중앙의 기대는 대단히 크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남포조선소의 로동계급이 앞으로도 우리 해군의 미래를 건설하는 자랑찬 창조자, 조선업현대화의 영예로운 개척자답게 더욱 과감히 분진해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구축함 《최현》호를 배경으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다목적구축함 《최현》호의 함무장체계들에 대한 전투적용성시험에 착수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미싸일총국과 국방과학원, 탐지전자전총국, 남포조선소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첫 시험발사를 참관하시였다.

다목적구축함 《최현》호의 함무장체계들에 대한 전투적용성시험에 들어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총국과 국방과학원, 탐지전자전총국은 구축함 《최현》호에 탑재된 무장체계들의 성능 및 전투적용성시험에 착수하였다.

구축함의 첫 무기체계시험이 4월 28일과 29일에 진행되였다.

4월 28일 초음속순항미싸일과 전략순항미싸일, 반항공미싸일들의 시험발사와 127㎜함상자동포 시험사격이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미싸일총국과 국방과학원, 탐지전자전총국, 남포조선소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첫 시험발사를 참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무기체계시험일정에 들어간 구축함을 방문하시여 무기체계심의그루빠성원들로부터 함무장체계들의 시험단계별일정과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첫 시험발사를 지켜보시였다.

지도간부들은 127㎜함상자동포의 위력에 깊은 관심을 표시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함상무기체계들에 대한 전투적용성시험을 예견성있게 준비하여 신속히 시작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이 사업을 계획대로 엄격히 진행하여 함의 무장체계들을 빠른 기간내에 통합운영할수 있게 완성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초음속순항미싸일과 전략순항미싸일, 전술탄도미싸일을 비롯하여 가장 강력한 타격수단들과 함의 통상적인 방어수단들을 효과적으로 배합탑재한 우리 식의 함상화력체계가 정말로 훌륭하다고 다시금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령해에 침입하는 적이나 격퇴하는 기존사명의 구축함은 믿음직한 해상방어수단이라고 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강력한 공격능력을 전제로 하는 주동적이며 공세적인 방어체계를 수립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새세대 고도기술을 도입한 공격 및 방어형 복합체계들의 장비수준을 부단히 높여 함의 다용도,

특별소식

다목적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것은 우리 함선공업부문앞에 나서는 중대한 과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현존위협과 전망적인 위협으로부터의 국가방위와 해양주권수호를 위하여 해군의 핵무장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책임적인 선택을 할 때가 되였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제반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4월 29일 함대함전술유도무기와 각종 함상자동기관포들, 연막 및 전자장애포들의 시험사격이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3돐을 환희롭게 경축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 청소년학생들이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당중앙위원회 일군들, 성, 중앙기관, 무력기관 책임일군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당중앙의 향도따라 반만년력사에 특기할 기적과 변혁의 시대, 전면적국가부흥의 새 전기를 열어나가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전체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3돐을 환희롭게 경축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으로 인민의 다함없는 경모의 대하가 끝없이 굽이쳤다.

만수대언덕을 비롯하여 전국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 청소년학생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였다.

4월의 봄명절을 맞으며 전국의 원아들과 어린이들, 소학교학생들이 은정어린 선물을 받아안았다.

수도와 각 도(직할시)들에서 진행되고있는 사진전람회장을 돌아보면서 참관자들은 국정의 첫자리에 언제나 인민을 놓으시고 인민을 위한 사색으로 위대한 령도의 날과 달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우리 조국의 영광은 만대로 이어질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깊이 간직하였다.

뜻깊은 4월의 명절을 맞으며 화초축전-2025가 4월 15일소년백화원에서 진행되였다.

평양과 지방의 곳곳에서 태양절을 경축하는 공연무대들이 펼쳐져 명절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경축의 환희와 격정은 각지 청년학생들과 근로자들의 무도회장들에도 차넘쳤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13돐경축
중앙사진전람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13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 진행

화초축전-2025 진행

제28차 전국료리축전 진행

새시대 평양의 변천을 보여주는 사진전람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3돐경축 로화가들의 미술전람회 진행

제5차 사탕, 과자조각전시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3돐경축
전국서예축전 진행

평양시청년학생들의 야회 및 축포발사 진행

경사스러운 4월의 명절을 맞으며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청년학생들의 야회가 진행되였다.

온 세상을 밝히는 환하신 미소로 우리 조국의 영원불멸할 존엄과 휘황한 앞날을 축복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삼가 드리며 참가자들은 《수령님 높이 모신 내 조국 노래하네》,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나라》 등의 노래선률에 맞추어 화려한 춤바다를 펼쳐놓았다.

경축의 밤하늘에 눈부신 축포탄들이 솟구쳐오르며 야회분위기는 고조되였다.

뜻깊은 태양절을 환희롭게 장식한 평양시청년학생들의 야회 및 축포발사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위대한 창조와 변혁의 시대를 애국의 힘과 열정으로 빛내여나가는 새세대들의 혁명적기개를 잘 보여주었다.

제9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성황리에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3돐을 맞으며 제9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이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제9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에는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는 강동종합온실농장과 중평온실농장의 예술소조원들 그리고 당의 은정속에 솟아난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의 예술소조원들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우수한 24개 단체의 1 500여명이 참가하였다.

축전은 인민문화궁전과 평양대극장, 동평양대극장, 청년중앙회관을 비롯한 수도의 극장들과 회관들에서 시, 군(련합)예술소조부류, 기관예술소조부류, 공장, 기업소예술소조부류, 농장예술소조부류로 나뉘여 진행되였다.

공연들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우리 국가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해나가는 총진군길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갈 온 나라 전체 인민의 충성과 애국의 열의가 세차게 분출되였다.

제31차 평양국제마라손경기대회 진행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4월명절에 즈음하여 제31차 평양국제마라손경기대회가 진행되였다.

마라손, 반마라손, 10㎞, 5㎞달리기로 나뉘여 진행된 이번 경기대회에는 우리 나라와 중국, 로므니아, 마로끄, 에티오피아 선수들과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온 마라손애호가들이 참가하였다.

김일성경기장에서 6일 개막식이 있었다.

노래 《사랑하노라》가 주악되는 속에 경기대회상징기발이 게양되였다.

이어 경기가 시작되였다.

개선거리, 승리거리, 청춘거리를 비롯한 수도의 거리들을 누벼나가는 마라손선수들에게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손을 흔들고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고무해주었다.

마라손경기에서는 우리 나라의 남, 녀선수들이 영예의 1위를 쟁취하였으며 반마라손경기에서는 우리 나라의 남, 녀선수들이 금, 은, 동메달을 쟁취하였다.

애호가들의 남자마라손경기에서는 뽈스까선수들이 각각 1, 2, 3위를, 녀자마라손경기에서는 중국 홍콩선수가 1위를 하였다.

경기가 끝난 다음 페막식이 있었다.

페막식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과 애호가들에게 우승컵과 메달, 상장이 수여되였다.

제31차 평양국제마라손경기대회는 뜻깊은 4월의 봄명절 분위기를 더해주고 우리 인민과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 사이의 친선과 뉴대를 강화하는데서 의의있는 계기로 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3돐에 즈음하여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이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아 꽃송이를 진정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3돐을 뜻깊게 경축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이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3돐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으로 사람들의 물결이 굽이쳐흘렀다.

만수대언덕과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절세위인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찾은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우리 인민군대를 항일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하고 당의 령도에 무한히 충실한 혁명적무장력으로 장성강화시키신 불세출의 대성인들을 우러러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조선혁명의 개척기에 위대한 수령님을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받들어모시고 백두의 눈보라만리길을 헤쳐온 선렬들의 강의한 혁명신념과 불굴의 의지를 되새겨주는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았다.

항일혁명선렬들의 넋을 이어나가기 위한 계승자들의 기념행진이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각지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조국방선을 철벽으로 지켜가는 인민군장병들과 전쟁로병, 영예군인들의 가정을 찾아 명절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중앙과 지방의 극장들에서 다채로운 경축공연들이 진행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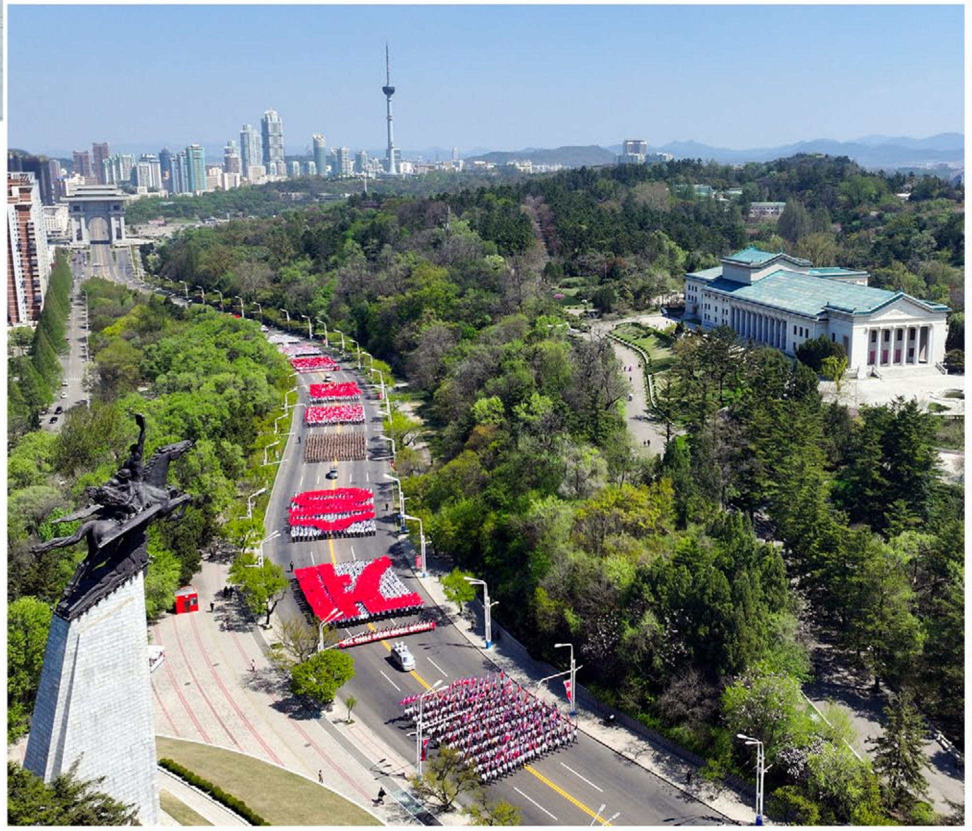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3돐경축 국방성협주단 음악무용종합공연 《백두교정의 영원한 메아리》가 4.25문화회관에서,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3돐경축 국립교향악단 음악회가 모란봉극장에서 진행되였다.

단막극 《웃음소리》공연이 국립연극극장에서, 국립교예단 배우들이 출연하는 종합교예공연이 평양교예극장에서 진행되여 관람자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평안남도, 황해남도, 강원도, 함경남도, 남포시 등에서 다채로운 공연무대들이 펼쳐져 뜻깊은 명절을 맞이한 인민의 긍지와 환희를 더해주었다.

이날 중앙동물원과 자연박물관, 개선청년공원유희장을 비롯한 문화정서생활기지들에서는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근로자들의 행복넘친 웃음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3돐경축 국방성협주단 음악무용종합공연 《백두교정의 영원한 메아리》가 진행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3돐에 즈음하여 항일혁명선렬들의 넋을 이어나가기 위한
계승자들의 기념행진이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안북도와 자강도, 량강도의 수해지역에 새로 일떠선 학교들에 악기들을 보내시였다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억만금도 아낌없이 기울이시며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우리식 사회주의의 영상으로 빛내여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열화의 사랑과 정이 조국의 서북변에 큰물피해를 가시고 희한하게 솟아난 배움의 교정들에 더욱 뜨겁게 흘러넘치고있다.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평안북도와 자강도, 량강도의 수해지역에 새로 일떠선 학교들에 피아노와 손풍금, 기타, 어은금, 가야금, 하모니카를 비롯한 악기들을 선물로 보내주시였다.

지난해 수해지역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특별조치를 취해주시고 몸소 4.25려관을 찾으시여 아이들의 앞날을 따뜻이 축복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천지개벽한 고향마을들에 자랑을 더해주는 멋들어진 학교들을 세워주시고 현대적인 교구비품과 교육설비, 체육기재들을 보내주신데 이어 또다시 수많은 악기들도 안겨주시는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후대들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진함없는 정으로 사회주의조국을 더 밝고 아름답게 가꾸어가시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의 대해같은 은덕을 온 세상에 전하며 아이들의 명랑한 웃음소리,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는 맑고 푸른 조국의 하늘가에 끝없이 울려퍼질것이다.

화성지구 3단계 새 도시구획의 새집들이

위대한 당중앙이 펼쳐가는 변혁의 새시대에 세세년년 흥하고 문명해지는 행복과 영광의 도시 평양이 4월의 봄과 함께 또다시 《새집들이 계절》을 맞이하였다.

거창한 변혁으로 약동하는 시대의 숨결을 비껴안고 화려한 도시구획으로서의 면모와 웅자를 자랑하며 솟구친 초고층, 고층살림집들과 각종 봉사망들이 특색있게 조화를 이룬 대건축군이 새집들이경사로 흥성이였다.

해마다 이어지는 인민의 대경사를 맞이한 기쁨이 누구라없이 크건만 잊지 못할 준공의 그날 인생최대의 영광을 받아안은 주민들의 감흥은 류달랐다.

새로운 번영기, 문명개화기를 펼치는 아름다운 평양의 전경이 한폭의 그림처럼 안겨오는 창가마다에서 인민들이 터치는 환호성, 감격의 목소리들이 드넓은 화성지구에로 울리여갔다.

온갖 꽃이 만발하는 화창한 봄계절과 더불어 나날이 커가는 인민의 웃음소리는 온 나라 인민이 한 목소리로 웨치는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되여 이 땅 가는 곳마다에서 더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인민을 위함이라면 만짐을 기꺼이 떠메고 미래의 휘황한 모든것을 당겨오시는 위대한 어버이사랑이 펼친 화성지구의 새집들이풍경은 세상에 부럼없는 선진문명국에서 대대손손 복락을 누려갈 인민의 모습을 현실로 그려보게 하는 아름다운 화폭이다.

당의 은정속에 새로 일떠선 20개 시, 군지방공업공장들의 제품품평회 진행

새로 일떠선 20개 시, 군지방공업공장들의 제품품평회가 22일부터 26일까지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이번 제품품평회는 인민들의 요구와 평가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제품의 질을 부단히 향상시켜나가며 선진기술들과 경험들을 공유일반화하면서 모든 지역들에 경쟁적인 발전풍조를 확립하여 지방공업의 질적발전을 힘있게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당중앙위원회 일군들, 도당책임비서들, 20개 시, 군의 당, 정권기관 일군들이 제품들의 품질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식료품들의 맛을 비교해보면서 해당 지역공장들의 질제고수준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였다.

품평회에서는 경공업부문에서 질제고를 첫째가는 과업으로 내세우고 기초식품과 필수소비품들의 질을 개선하는데 힘을 넣을데 대한 당정책관철에서 모범적인 시, 군별 순위가 결정되였다.

이 기간 지역의 자연부원, 경제적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는데서 나서는 정책적문제들과 지방공업공장들의 생산과 경영활동을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한 문제등에 대한 강습도 진행되였다.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 5.1절 135돐 뜻깊게 기념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 5.1절 135돐기념 중앙보고회 진행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5.1절을 맞이한
근로자들을 축하해주었다.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인 5.1절 135돐을 기념하는 근로자들의 기쁨이 각지에 차넘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에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차넘치였다.

만수대언덕과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절세위인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찾아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올리였다.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 5.1절 135돐기념 중앙보고회가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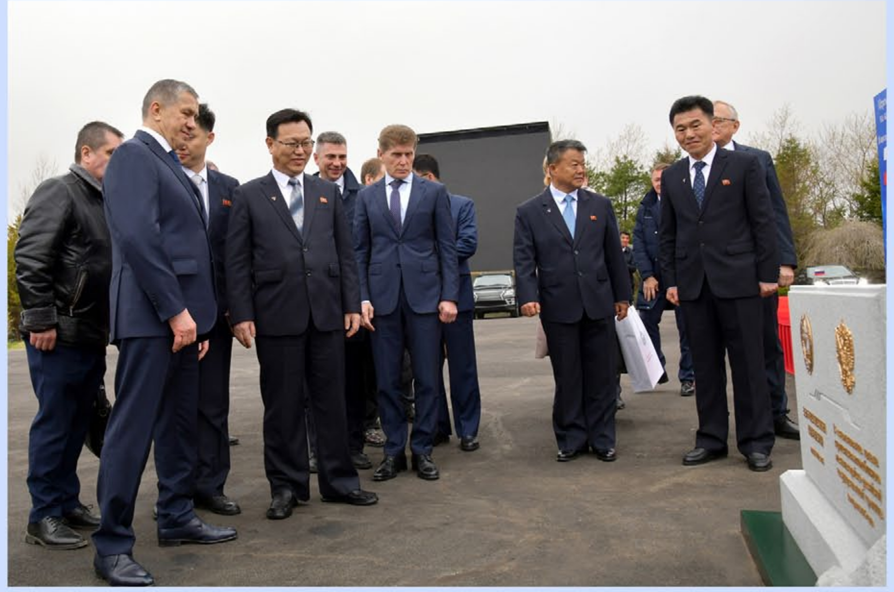
각지 당, 정권기관 일군들이 근로자들과 함께 5.1절을 뜻깊게 기념하였다.

수도의 극장, 야외무대들에 다채로운 공연종목들이 올라 명절의 환희를 더해주었다.

황해북도, 자강도, 강원도, 함경남도 등지에서도 이채로운 공연무대들로 명절분위기가 고조되였다.

인민의 문화정서생활기지로 훌륭히 꾸려진 중앙동물원, 자연박물관, 문수물놀이장과 함흥시의 승마봉사기지를 비롯한 문화휴식터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조로국경자동차다리건설착공식 진행



조로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의 깊은 관심과 기대속에 조로국경자동차다리건설착공식이 4월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경도시 라선시와 로씨야련방의 국경도시 하싼에서 동시에 진행되였다.

우리측행사장소인 조로친선각 국기게양대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와 로씨야련방 국기가 나붓기고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 박태성동지, 로씨야련방 정부수상 미하일 울라지미로비치 미슈스찐동지가 평양과 모스크바에서 화상방식으로 착공식에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와 로씨야련방 국가가 주악되였다.

로씨야련방 정부수상 미하일 울라지미로비치 미슈스찐동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 박태성동지가 축하발언을 하였다.

두 나라 정부수반들의 착공지시에 따라 쌍방의 다리건설현장들에서 건설장비들이 동음을 높이 울리며 공사에 진입하였다.

이어 조로국경자동차다리건설착공식기념표식비가 제막되였다.

표식비에는 두 나라 국장과 《조로국경자동차다리건설착공기념 2025년 4월 30일》이라는 글이 조문과 로문으로 새겨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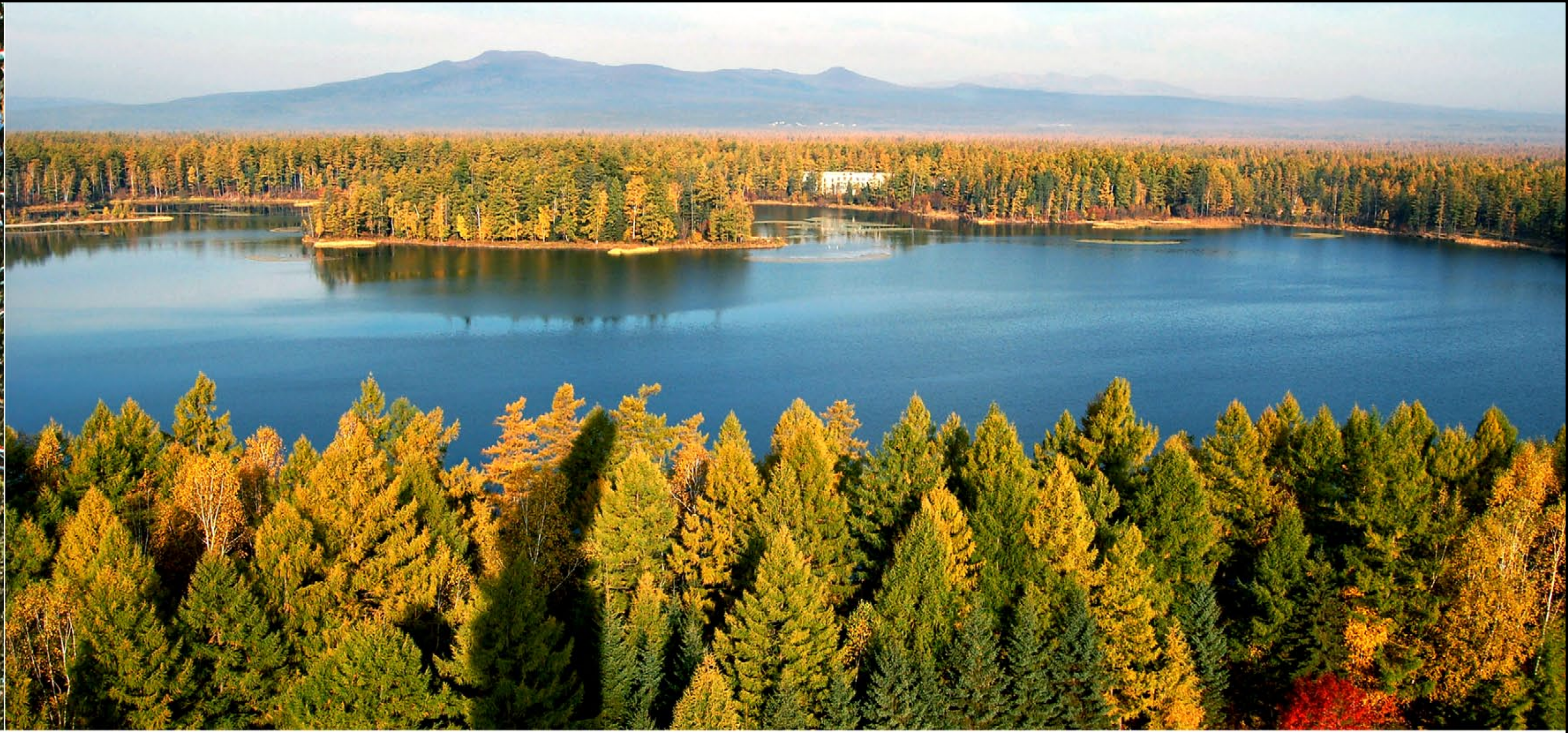
이날 착공행사에 참가한 우리 지도간부들은 조로친선각을 방문한 로씨야련방정부의 지도간부들과 담화를 나누었다.

담화에서는 조로사이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경제적련계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데서 실질적이고도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조로국경자동차다리건설을 제기일내에 완공하기 위한 실무적인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토의되였다.

백두산지역이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으로 등록

백두산지질공원은 특별한 화산지질학적의의와 관광적가치를 가지는 지질지점들이 일정한 규모로 분포되여있는 지질연구 및 보급기지, 관광지이다.

화산작용에 의하여 형성된 공원구역의 인문경관과 결합된 백두산지질공원은 특이한 생태와 력사, 문화적가치로 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끌고있다.



정일봉

정일봉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만년전에 점성이 높은 암장이 서서히 올라오면서 식어 생긴 용암탑이다. 용암탑의 형성과 삭박과정에 대한 과학적표상을 주는데서 의의가 큰 지질지점이다.

삼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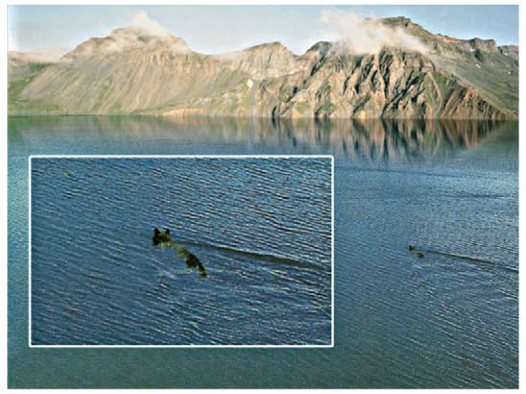
삼지연은 백두산지구의 화산활동에 의하여 형성된 무방수호이다. 화산분출과정을 연구하는데서 의의가 매우 크다.

갓봉의 지질단면과 동식물들의 일부

백두산지질공원에는 과학연구와 교육, 관광적가치가 있는 수십개의 지질지점들이 있다.

그가운데서 갓봉의 지질단면은 각이한 형식으로 분출된 화산분출물들을 하나의 단면상에서 보여주는것으로 하여 화산학적으로 의의가 있는 지질지점이다.

백두산지구에는 여러 차례의 화산분출과 그 진화발전과정에 동식물상이 부단히 변화되면서 풍부한 생물다양성이 형성되였다.



천지호반의 곰

눈속에 핀 만병초

천지산천어

리명수폭포

리명수폭포는 백두산에서 분출한 현무암의 침식작용을 받아 형성되였다.

폭포의 기본물줄기는 9개이며 이 물줄기사이에 구슬처럼 흘러내리는 무수한 작은 폭포들이 있다.

사철 마르지 않고 흘러나오는 지하수폭포로서 물량은 초당 0. 8㎥이며 겨울에도 얼지 않는것이 특징이다.

지하수가 절벽사이에서 뿜어나오는 리명수폭포는 흔히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현상으로서 국제적의의가 큰 희귀한 지질학적유산이다.

백두산지질공원이 위치하고있는 삼지연시는 우리 나라 북부산간도시의 전형으로 꾸려졌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문화 및 체육시설들에서 진행되는 여러가지 사업들을 통하여 지질공원에 대한 리해와 지역의 문화에 대한 보다 깊은 인식을 가지게 된다.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

삼지연들쭉음료공장

백두산지질공원은 자연경관과 인문경관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여 공간적으로 독특하고 훌륭한 종합체를 이루고있다.

2025년 4월 프랑스 빠리에서 진행된 유네스코집행리사회 제221차회의에서 백두산지역이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으로 등록되였다.

수양산지구의 석재생산기지

- 해주애국돌가공공장을 찾아서 -

황해남도 해주시에 있는 수양산은 무진장한 화강석자원으로 하여 유명하다.

바로 여기에 해주애국돌가공공장이 자리잡고있다.

지난 시기 공장에서는 각종 고급석재들을 대량생산하여 나라의 기념비적건축물들을 훌륭히 일떠세우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최근년간 이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공장을 현대적인 천연석재생산기지로 전변시켰다.

공장에서는 원석채취장으로부터 가공현장까지 석재운반궤도를 놓아 생산의 안정성을 보장하면서도 원가를 대폭 낮추었다.

또한 가공톱날을 생산할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돌가공설비에 필요한 부분품들과 장비들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였다.

그리고 각종 설비들에 대한 조종프로그람들을 자체의 기술력량으로 개발하여 로력, 에네르기를 절약하는

공장에서는 채석장에서 캐낸 원석으로 각종 규격의 판석, 란주, 란간, 경계석과 여러가지 돌공예품들을 생산하고있다.

공정들도 새롭게 확립하였다.

그리하여 가공직장들에서 로동자들은 아무리 육중하고 굳은 돌들도 정밀하게 가공하고있다.

공장에서는 제품가공으로부터 출하에 이르는 모든 생산공정을 종합조종실에서 조종하고있다.

지금 해주애국돌가공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중요대상건설장에 필요한 돌가공품증산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사진 리철진
글 박경철

평양지하철도

평양지하철도는 수도시민들이 즐겨 리용하는 교통수단의 하나이다.

1973년 9월 첫 개통식을 한 후 단계별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건축물로 건설되였다.

평양지하철도는 시민들의 교통상 편리를 도모해주는것과 함께 우리나라의 발전로정과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반영한 대형벽화들과 부각장식 등이 매 역들을 아름답게 장식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개통된 초기부터 《지하궁전》, 《지하평양》으로 불리우며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이러한 평양지하철도가 2010년대를 거쳐 2020년대에 이르러 새롭게 달라져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하철도역들을 새로 개건하는 사업을 위해 수많은 형성안들을 하나하나 몸소 지도해주시였다.

하여 수도 평양에는 새 거리와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는 창조물들이 련이어 일떠서고 있는것과 함께 지하에서도 새로운 모습이 뚜렷하게 펼쳐지고있다.

지난시기 개선역, 모란봉역, 전승역, 전우역, 붉은별역, 혁신역 등의 모습이 련이어 일신되였으며 올해에 들어와서도 영광역과 북성역이 개건되였다.

매 역들은 천정장식, 조명장식 등이 보다 현대적이면서도 우아하게 됨으로써 조형화, 예술화수준이 훨씬 높아졌다.

이와 함께 각지에 새롭게 일떠선 건축물들과 인민들의 문명한 생활모습을 반영한 사진들로 지하역홀들과 련결복도, 계단승강기구간들이 장식되였다.

려객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시설들도 새롭게 갖추어졌다.

한해가 다르게 변모되는 평양의 모습이 지상과 함께 지하에도 펼쳐지는 속에 지하철도를 리용하는 사람들의 기쁨도 계속 커가고있다.

사진 리철진, 우정국
글 김선경

2중세계선수권 보유자

방철미

지난 3월에 진행된 2025년 국제권투련맹 세계녀자권투선수권대회 52㎏급경기에서 우리 나라의 방철미선수가 맞다드는 선수들을 모두 이기고 1위를 쟁취하였다.

이렇게 되여 그는 2018년 국제권투련맹 세계녀자권투선수권대회 51㎏급경기에 이어 두번째로 세계선수권을 보유하게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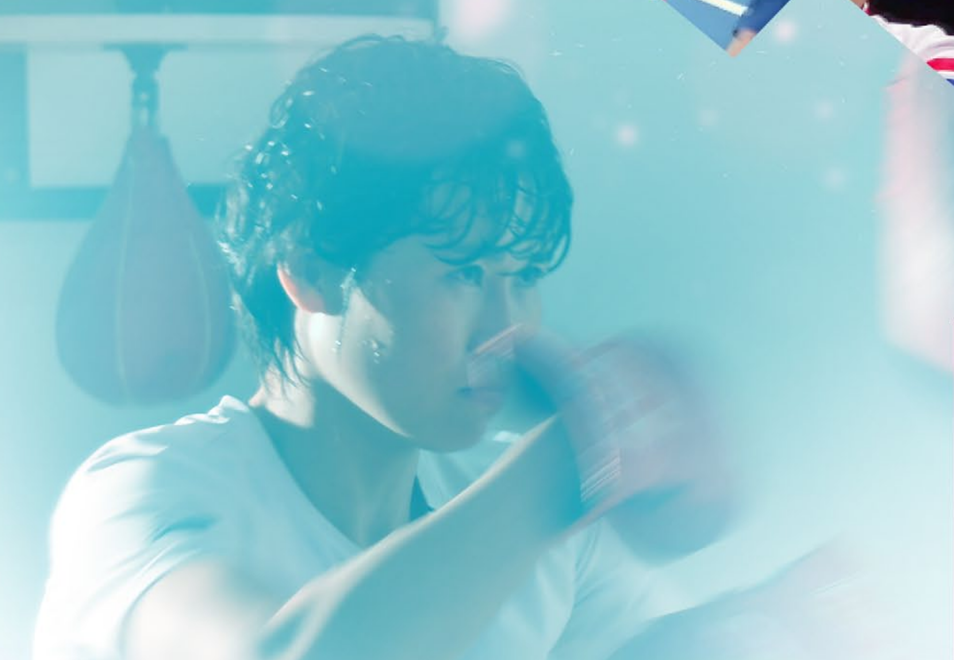
평안북도 정주시가 고향인 방철미의 어릴적꿈은 이름난 녀자유술선수 계순희처럼 조국의 영예를 떨치는 체육선수가 되는것이였다.

학생시절에 그는 정주시과외체육학교 지도교원의 권고로 권투를 배우기 시작하였으며 몇년후부터는 국내경기들에서 우승하여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금강산선수단에서 선수생활을 시작한 그는 무쇠주먹으로 세계패권을 쥘 목표를 내세우고 꾸준히 노력하여 국내의 이름난 녀자권투선수들중의 한사람으로 되였다.

뿐만아니라 국제경기들에서도 우수한 전적을 기록하였다.

그는 2018년 12월 우리 나라에서 특출한 공훈을 세운 체육인들에게 수여하는 인민체육인칭호를 받았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로 선정되였다.



오늘도 방철미는 더 많은 금메달로 조국을 빛내여갈 열의를 안고 훈련장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흘리고있다.

사진 손희연
글 김선경

라선의 습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북변을 따라 흐르는 두만강하구와 조선동해 조산만수역의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있는 라선의 습지는 다양하고 풍부한 생태계를 가진 자연의 보물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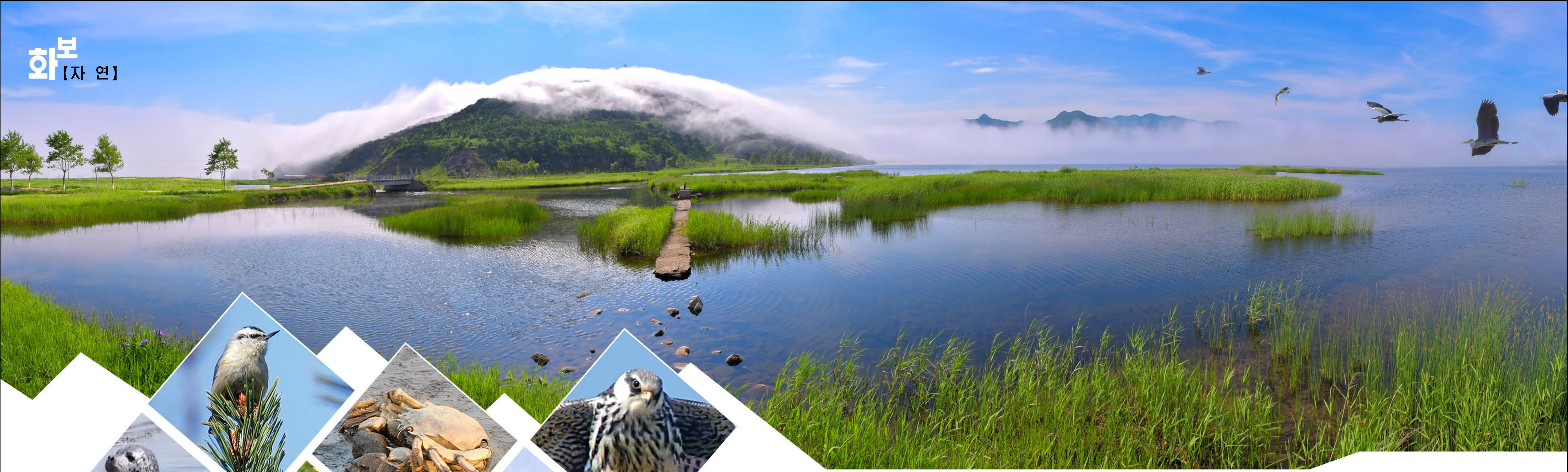
라선시 선봉구역에 있는 굴포동의 만포, 동번포, 서번포수역은 철새들의 더없이 좋은 살이터, 리상적인 보금자리이다.

이 일대에는 호수나 진펄이 많은것으로 하여 넓은 면적의 풀판군락이 형성되여있으며 물살이식물, 벼과, 방동사니과 등의 식물들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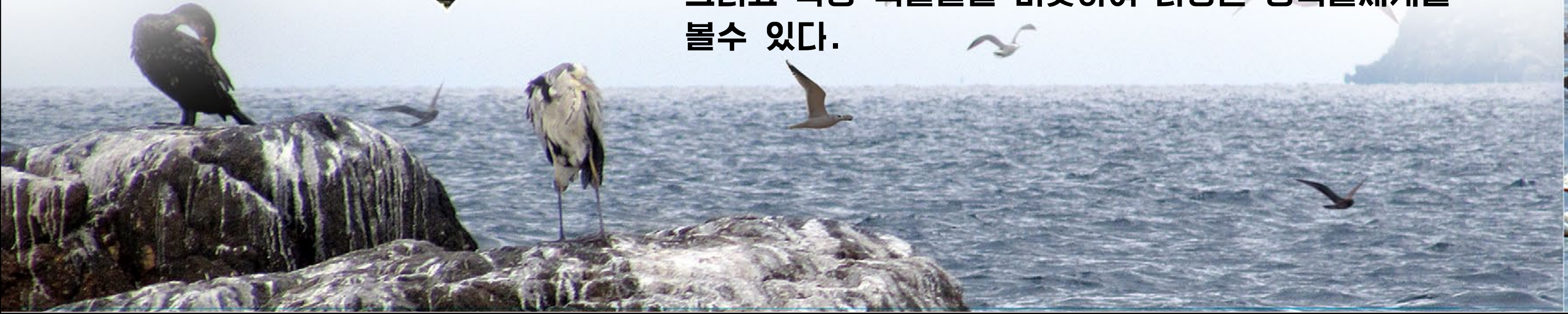
바다기슭에는 소나무들이 자라고 여기에 떡갈나무, 해당화, 붉은병꽃나무들이 무성한 숲을 이루고있다.

이 일대에서 기록된 조류의 종은 300여종이다.

나라의 주요철새보호구들의 조류종수들을 비교한 결과 라선철새보호구가 가장 우세하였으며 이것은 조류종들의 보호에서 다른 보호구들에 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



라선지구의 아늑한 숲과 맑은 호수, 진펄, 넓은 바다연안수역에서는 노루, 청서, 다람쥐, 삵 등 많은 짐승들과 수십종의 곤충들, 물고기, 조개, 성게, 새우 등 수생동물들, 바다짐승들인 물개와 물범 그리고 각종 식물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동식물세계를 볼수 있다.



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라선지구의 아늑한 숲과 맑은 호수, 진펄, 넓은 바다연안수역에서는 노루, 청서, 다람쥐, 삵 등 많은 짐승들과 수십종의 곤충들, 물고기, 조개, 성게, 새우 등 수생동물들, 바다짐승들인 물개와 물범 그리고 각종 식물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동식물세계도 볼수 있다.

보호구일대는 먹이조건과 은페조건이 좋은 지리적위치로 하여 조선동해연안을 따라 이동하는 철새들의 중요한 도중머무름장소, 서식지로 되고있다.

습지는 1995년부터 국가적인 철새보호구로 되고있으며 2018년 람사르대상지(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 등록되였다.

라선시의 습지생태계는 오늘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정책에 의하여 더욱 다양하고 풍부해지고있다.

글 박병훈

www.dprkportal.kp www.rodong.rep.kp www.kcna.kp www.vok.rep.kp www.minzu.rep.kp www.naenara.com.kp www.pyongyang-times.com.kp www.youth.rep.kp www.mediaryu-gyong.com.kp www. korean-books.com.kp www.kass.org.kp www.mfa.gov.kp www.tourismdprk.gov.kp www.korart.sca.kp www.kftrade.com.kp www.korstamp.com.kp www.ryomyong.edu.kp www.moph.gov.kp www.mirae.aca.kp
www.sdprk.org.kp www.yongsaeng.org.kp www.koreanarchi-tecture.com.kp www.korfilm.com.kp www.ryongnam-san.edu.kp www.kut.edu.kp www.gpsh.edu.kp www.kiyctc.com.kp www.korelcfund.org.kp www.kza.org.kp www.manmul-sang.com.kp www.cooks.org.kp www.knic.com.kp www.friend.com.kp www.koredufund.org.kp www.ma.gov.kp www.fia.law.kp www.dprknado.org.kp

© 조선화보사 2025
화보 《조선》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 홈페지에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로 게재됩니다.
주소: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http://www.korean-books.com.kp
전자우편(E-mail):flph@star-co.net.kp

ㄱ-25088031310